

형태·견고성 중시한 포장디자인, 소비자 신뢰도 배가 대명제인 한국포장디자인 발전에 충실

이우철 / 에드컴 디자인 실장

김곡미 / LG화학 디자인연구소 생활용품팀 과장

경 제성장과 각종 대체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화와 더불어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 수출시장에 나서는 국내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전략과 세계수준의 참신한



▲ 이우철 실장(좌) · 김곡미 과장(우)

디자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요구에 맞는 디자인 제품의 생산과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 가을로 31회째를 맞이했다.

예년에 비해 포장디자인 부문에 많은 작품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에서 포장디자인 부문에 '실용화를 위한 수출용 스키장비 포장디자인 연구'로 공동출품해 통상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LG화학 디자인연구소의 김곡미 과장과 에드컴디자인의 이우철 실장을 만났다.

스키용품을 구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품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궁금증을 느낀 김 과장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포장의 낙후로 소비자들의 의

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스키용품 포장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에 대비해 주종목인 스키용품을 주제로 선정하여 국내 스키제품 포장의 문제점을 찾고 디자인 개선방향을 제시, 국내 소비자의 욕구에 만족을 주는 동시에, 포장디자인에 한국의 스키장비 수준을 담아 세계에 알리고 무역에 대한 개념적인 인식을 높이는 한편 수출상품 포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방향을 컨셉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미에 의기투합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품을 끝내고 나서 시간과 경제적 여건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수상을 하고 보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라는 이 실장은 수입용 스키용품에 대해서 제품 및 포장관련 시장조사만 6개월 가까이 진행하면서 유명브랜드들도 제품 및 포장디자인에 있어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예상 외의 결과에 실망한 이 실장은 이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산화하여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관세의 부담을 덜고 국내 스키인구에 대한 충분한 공급과 B·I 개념을 통한 시각적인 측면을 통일화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강조한 생산성에 중점을 둔 스키용품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날로 늘고 있는 스키인구에 대비해 우리 상품의 질을 높이고 포장의 형태와 물리적 위험에 대비한 견고성을 중시하며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간비율 활용, 보관 및 하역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각적 효과를 겸비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에서의 신뢰도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스키용품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상품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김 과장은 “한국최

초의 스키용품 생산업체인 (주)근남레포츠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일본 BIGHON사와의 충분한 협의에 따라 98년에는 FULL-SET를 생산한다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국산품에 대한 스키인의 낮은 인지도와 국산품의 세계화 역시 이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스키용품 포장디자인 개발에 의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키의 세계적인 추세에서 생산·작업·운반과정, 또한 연령별·성별 기호조사부터 판매과정까지 전 분야의 시장조사를 분석하는 것 등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지 스키용품의 구입절차를 끝냈는데 한국에서는 현재 플레이트와 폴 밖에 생산되고 있지 않아 인쇄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근남레포츠에서 기술제휴회사인 일본 BIGHON사에 협조를 구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패키지디자이너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포장산업 발전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이번을 계기로 하여 더욱 더 연구에 노력하겠다는 두 사람의 다짐에서 한국포장디자인의 진일보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